

# “권역별 관광 주도·교통 확충 ‘희망 고성’ 완성 위해 달릴 것”

이동명 | 승인 2021.09.15 | 20면

인터뷰 | 함명준 고성군수  
고성 미래 설계·방향설정 완료  
실질적 결과물 전달 노력 계획  
DMZ하늘길·송지호 경관자원화  
고성관광 미래 열 주요사업 박차  
동서고속철·동해북부선 연계  
직결노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남북평화고속도 지속 요청 총력  
군-유럽연합 국제행사 협력  
27개 회원국 수련회서 논의 예정  
리더십경영부문 대상 수상 영광  
군민 목소리 군정반영 지속 노력



▲ 함명준 군수

함명준 고성군수는 14일 인터뷰를 통해 군정운영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 고성' 실현을 위해 달려온 함 군수는 동서고속철도-동해북부선철도 직결노선(삼각선) 연결, 고성~속초 평화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굵직한 현안해결에 나서고 있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을 섬기는 행정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15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군정운영 2년차이자 후반기를 맞았다.전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은.**

"2년의 임기 중 첫해는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시기였다. 2년차에는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군민 여러분께 전달되도록 더 노력하겠다. 체크카드형 지역상품권 출시로 지역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신설을 중앙부처·국회 등에 건의해 간성역 이외에 화진포신호장 추가 설치가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간성읍에 어울림복지관이 개관돼 목욕탕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 달흘문화관에 위치한 고성문화재단이 문화예술 관련사업을 시작했다. 토성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됐고, 토성면행정복지센터 이전도 앞두고 있다. 거진읍

소재 금강쪽빛 DMZ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내 착공,2022년 준공 계획이다.또 죽왕면에 87억원 규모의 송지호 꿈나눔활력센터를 구축하고,현내면에 100억원 규모의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권역별 관광종합계획을 마련해 고성관광의 미래를 주도하겠다.DMZ권역에 1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DMZ하늘길조성사업을 추진하고,화진포권역에 해양박물관 패류동 리모델링에 39억원,화진포 셔우드홀 문화공간 조성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송지호권역에는 송지호경관자원화사업에 60억원을 투자해 출렁다리와 레이크카페 등을 조성한다.이밖에 거진 해맞이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60억원을 투자한다.”



▲ 함명준 고성군수가 민생 현장 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안은.

“동서고속화철도·동해북부선철도 직결노선(삼각선) 확보를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5km 직결노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7월 23일 착수했다.10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에 준공 예정이다.직결노선(삼각선) 연결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겠다.또 고성~속초의 25.1km 구간을 연결하는 남북 평화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목적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최근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거진~속초 32.1km 구간을 고속도로로 연

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중앙부처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사업'이 2022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데.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사업이 '2022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돼 92억 원의 국비가 확보됐다.화진포 관광지 일원 김일성별장에서 거진항까지의 해안절경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작년에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며,내년부터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행정 협의를 거쳐 착공,해안데크 2.5km와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2024년 화진포 해양누리길을 개장할 계획이다.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금강산관광 중단,대형산불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성 토성면 군정설명 및 현안청취 간담회가 지난 7월 15일 토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고성을 방문한 세계 각지의 외교관 등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고,국제행사 장소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지역을 국제적 관광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사가 지난 8월6일 고성을 방문해 친환경 농업과 남북관계,환경중심 발전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행사 개최 등 분야에서 군과 유럽연합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올해 가을에 총 27개국의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이 수련회를 열고 주요사업장,통일전망대를 둘러보며 고성군과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8월1일 고성을 방문한 마틴 행겔만 한독상공회의소 대표는 아름다운 고성의 매력에 빠져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한독상공회의소는 한국과 독일 양국 경제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첨단산업과 친환경에너지분야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해 8월 주한 프랑스대사를 시작으로 알제리,독일 등 외국인사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다.지난 7월13일 연어스마트양식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해 주한 덴마크 대사관을 방문해 해양심층수 활용이 가능한 군유지에 덴마크의 연어양식 원천기술 활용과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연어를 국내에서 생산해 중국 등 주변국 수출하는 등 연어양식산업을 지역의 혁신 동력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안내표지판과 팸플릿,메뉴판 등에 영문을 병기하고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관광지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또 최근 관광·대외협력분야 활성화를 위해 조용수 특별보좌관을 위촉했다.”



▲ 함명준 고성군수가 지난 8월 6일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 **-고성군이 '2021 국민공감 캠페인' 리더십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한 소감은.**

“코로나 시대 군민과의 끊임없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큰 노력을 쏟은 부분이 인정된 것 같다.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365일을 한결같이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군민을 섬기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군정설명과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희망찬 마을 만들기 좌담회 및 군민 감사관제,주민참여예산제 등 열린 행정 주민소통의 장을 펼쳐 다양한 계층의 현장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소통·공감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주민자치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자치역량 강화 지원,자랑스런 출향 고성인 선정,마을담당관제 운영 등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군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군정에 반영해 섬기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

### **-고성북부지역의 주택보급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100호 규모인 거진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거진리 410번지 일원에 260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자돼 2023년 연말까지 준공계획이다.대진리 345-1번지에 계획 중인 현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100호 규모)은 2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지난

8월말 공모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했다.군은 지난 8일 NCMN과 'NCMN 고성연수원(세대공감 비전센터) 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간성읍 금수리 일원 2만7180평(89,692m<sup>2</sup>)의 부지에 약 690억원을 투자해 교육연수시설(24동),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주민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속에 맞이하는 특별한 명절이다.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기는 어려워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마음만은 한가위 보름달처럼 차고 넘치는 명절이기를 희망한다.우리 민족은 위기를 만났을 때 늘 지혜로웠다.전례가 없는 감염병 위기를 맞아서도 수준 높은 공동체 의식을 실천해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이번 추석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동명  
ldm@kado.net



**이동명** ldm@kado.net